

[친일인명사전: 김갑순 편]

김갑순 金甲淳 | 金井甲淳, 1872~1960, 충남 공주
중추원 참의 / 군수 /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1872년 5월 22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장남 김종석(金鍾錫)은 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냈으며, 첫째 사위는 만주국 젠다오성[間島省] 차장을 역임한 윤명선(尹明善)이다. 도지사를 지낸 이규완(李圭完), 중추원 찬의를 지낸 윤치오(尹致昨), 이완용(李完用)의 손자인 후작 이병길(李丙吉) 등 세력가들과 사돈을 맺어 당대 최고의 친일 혼맥을 구축하였다.

1900년 9월 충청북도관찰부 주사로 관직에 나아가 1901년 8월 중추원 의관을, 같은 해 11월 내장원 봉세관(捧稅官)을 지냈다. 1902년 4월 충청남도관찰부 부여군수를 거쳐 1903년 8월 충청남도 노성군수, 1905년 6월 임천군수, 1906년 7월 공주군수, 1908년 3월 강원도관찰도 김화군수를 역임했다. 1909년 9월부터 충청남도관찰도 사무관으로, 1910년 1월 충청남도관찰도 아산군수로 재직했다.

합병 후, 1910년 10월 충청남도 아산군수에 유임되어 재직하다 1911년 3월 사직했다. 이후 공주에서 황무지 개간과 소택지 매립, 수리사업 등을 통해 대지주로 성장했다. 1930년대에 공주·대전 지역에 논 1200여 정보, 밭 250여 정보, 기타 1800여 정보 등 3300여 정보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3년 6월부터 1920년 10월까지 충청남도 참사를 지냈다. 1913년 7월 충청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아 1918년 8월까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했다. 1916년 8월 <매일신보> 충청남도지국장을 맡았다. 같은 해 9월 조선물산공진회 평의원, 10월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을 지냈다.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4월 공주위생조합 부조합장을, 1917년 6월 제국군인후원회 통상회원을, 1917년 10월 공주군 공주면 상담역을 맡았다. 1919년 6월 충청남도 참사 서한보(徐漢輔)와 함께 일본인 도장관·도경찰부장·공주군수 등을 초빙하여 간친회를 열고, "금반 소요는 인민의 오해이니 앞으로 내선인이 특별히 친밀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1919년 10월 공주시가지금융조합 조합장을 맡았다. 1920년 10월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조선인참정권운동을 추진한 국민협회의 충청남도지부장으로 활동했다. 1920년 11월 공주면 면협의회 원에, 12월 충청남도 도평의회원에 선출되었다. 1921년 4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30년 6월까지 재임했다. 1921년 11월 대전온천주식회사 전무취체역으로 활동했다.

1924년 4월 관선 충청남도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고, 경성취인소 중매인을 맡았다. 1925년 유성

온천주식회사 전무취체역을 맡았다. 1925년 4월 공주군농회 특별의원을, 같은 해 7월 충청남도농회 부의장을, 1927년 4월 조선농회 통상의원을 지냈다. 1926년 11월 공주면 면협의회원에 당선했다. 1927년 9월 충청남도 우성수리조합 조합장, 1927년 내선영화단체인 동민회 공주지부 상담역, 1928년 조선소방협회 충청남도지부 평의원, 1929년 동민회 평의원을 지냈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에 위촉되었다. 1929년 11월 공주면 면협의회원에, 1930년 4월 민선 충청남도 도평의회원에 당선했다. 1930년 11월 충청남도농회 부회장을 연임했다. 1931년 2월 『매일신보』 충청남도지국 고문에 추대되었다. 1932년 2월 애국기(愛國機) '조선호' 헌납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 모금운동의 상임위원을 맡았다. 1933년 5월 민선 충청남도 도회의원에, 1935년 5월 공주읍 읍회의원에 당선했다.

1935년 10월 시정25주년기념표창을 받았다.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주최한 사회교화진흥간담회에 참석했다. 1937년 유성온천주식회사 사장으로 활동했고, 1938년 1월 조선유림연합회를 대표하여 중국 전선(戰線)의 일본군을 위문했다.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겸 평의원, 국민정신총동원 경성부연맹 상담역, 8월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을 맡았다. 1938년 9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신문사를 인수하여 사장에 취임했다.

1939년 2월 경성부 육군병지원자후원회를 발기했고, 7월 배영동지회 상담역을 맡았다. 같은 해 11월 각종 유림단체를 통합하여 유림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조선유도연합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국민총력경성부연맹 평의원을 맡았고, 11월에 기원2600년축전기념장을 받았다. 1941년 8월 흥아보국단 충청남도 위원으로 참여했고, 9월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유격대 남대문대에 편성되었다. 같은 해 9월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경성)으로 참여하고 10월에 이사를 맡았다.

해방 후,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1960년 8월 16일 사망했다.